

문화정책·비전 없는 '문화중심도시 광주'

민선 8기 4년 목표·추진 전략에
기존 사업만 나열·방향성도 부재
문화예술계 "시정 하위개념 처음"
미래상·현안 해법 제시 목소리 비등

강기정 광주시장이 구상하는 민선 8기 시정에 문화정책과 비전이 없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관련기사 3면

강 시장이 제시한 문화정책 대부분이 전임 시장의 사업 승계에 그치고 있는 데다 미래 방향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직개편으로 내부 역량마저 축소되는 등 경쟁력을 잃고 있는 '문화도시 광주'의 쇠락을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5대 시정목표를 담은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향후 4년 광주시정에 대한 밑그림이 제시된 전략보고서에는 그러나 '신경제도시' 등 경제정책과 '밀린 숙제'로 표현한 5+1 현안 등에 대한 해법만 제시했을 뿐 주목할만한 문화정책은 담아내지 못했다.

'강기정호'가 내세운 문화정책은 ▲문화산업 투자환경 조성 및 기업 유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생태계 조성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착 등으로, 5대 시정 목표 중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꿈쟁도시'의 범주에 국한됐다.

그나마도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사업의 경우 올해 3월 2023년 연차별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



먹이 찾는 원앙들 연일 30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이어진 20일 연봉홍빛 연꽃이 만개한 전남대 용지에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무리가 한가롭게 먹이를 찾고 있다. /김태규 기자

됐고, 문화도시 환경조성 분야 등 63개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다. 또 2024년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5월 신규사업 발굴 TF팀이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생태계 조성도 아시아 예술인재 양성 거점 공간 조성·광주 시민예술인재 아카데미·문화누리카드 지원·예술활동 안심 보험·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TF팀이 운영 중이다.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 역시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사직공원 상설공연장·광주 문학관·수완 복합커뮤니티센터·정음석 역사공원 등 세부과제들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민선 8기 광주시가 제시한 문화정책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거나 민선 7기 성과 승계에 그친 것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과 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을 두고서도 크고 작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편안 중 문화관광체육실의 관광진흥과가 이관되면서 관광과 문화가 분리돼 관련 부서의 역량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이에 지역문화예술계에서는 비엔날레·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문화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할 획기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유네스코지정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예술을 통한 5·18 대중화 등 현안들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비등하고 있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는 "문화 중심도시로 광주를 표방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문화적인 삶은 정제돼 있고 문화생태계는 고사 직전에 있다"며 "민선 4~7기까지

취임 후 시정목표를 확인했는데 문화가 명시가 안 되고 하위개념으로 들어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후속 조치와 대응방안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미술가 A씨는 "광주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예산 등 각종 지원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어 관련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며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대규모 전시·창작 공간은 지역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비엔날레 전시관이나 동부경찰서 이전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를 민간에 팔지 말고 문화예술과 접목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무안공항 다시 뜬다

국내외 항공사 취항 잇따라
김영록 "무사증 입국 추진"

국내외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이 잇따라 재개되는 등 코로나19로 멈춰섰던 무안국제공항이 활기를 띠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안군수·김이배 제주항공대표이사·한국공항공사 관계자 등은 2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국제선 운항 재개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기념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 4개월 동안 국제선 운항이 중단됐던 무안공항에서 국내 항공사인 제주항공의 베트남 다낭 주 2회 운항 정기노선 출발 일정에 맞춰 이뤄졌다. 제주항공은 오는 27일부터 태국 방콕을 주 2회 오가는 정기노선도 추가 운항한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2018~2019년 무안국제공항을 운항한 국제선 약 1만400여 편 중 51%를 차지한 제주항공이 앞으로도 무안국제공항의 대표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외에도 베트남 비엠텐항공·몽골 훈누에어 등 외국계 항공사도 베트남 달랏과 몽골 울란바토르 등의 부정기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어서 무안공항 국제선은 7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국내선의 경우 각각 주 2차례 운항하던 제주와 김포 노선이 지난달 25일부터 주 3회로 증편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운항이 중단된 울산 노선도 7월 1일부터 주 2차례 운항을 재개했다.

김 지사 등은 면세점과 출국장 등 공항 각 시설을 둘러보며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추진 현황을 점검한 후 공항 근무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무안공항이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세계적 공항으로 우뚝 서도록 재정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며 "무사증 입국(한달간 비자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이 가능하도록 법무부에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근산 기자

광주형 복합쇼핑몰 논란 확산

시민단체 "일방통행 중단" 촉구

광주지역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복합쇼핑몰 유치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이 잇따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자치21은 20일 성명을 내고 "애초 복합

문화 쇼핑몰 유치문제는 광주시와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로, 민선 7기를 거치며 공익성과 사회적 상생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지고 있었다"며 "광주시가 집중한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의 정신을 발전시켜 어떤 복합문화쇼핑몰이 필요한 것인지, 시민 편익

과 공익성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상생이 가능한 추진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9,000억 지원을 요구하며 제시한 강기정 시장의 복합쇼핑몰 건설안이 시민 편익과 공익성, 사회적 상생 방안을 충분히 다루고 있는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지원을 끌어낸다는 명분으로 이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은 복합쇼핑몰 논의를 산으로 가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자치21은 또 "말장난에 불과했던 국가주도 복합쇼핑몰 논의에 매몰되기보다 광주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구와 함께 중앙정부와 대화하라"며 "강 시장의 9,000억 지원 발언이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의 지역 확대에 면죄부를 주고, 그들의 말장난에 놓여나는 일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중소상공인도 일방통행식 입점 추진을 중단하라며 광주시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 2면으로 이어짐 /김용현 기자

INSIDE NEWS
광주시 첫 조직안 의회 통과 난망 ▶ 3면
기획 / 구북규 화순군수 ▶ 11면
KIA타이거즈 전반기 결산 ▶ 14면

www.hinuri.co.kr

부동산개발 | 분양마케팅 전문 디벨로퍼 그룹 하이누리

HI-NURI 하이랜드(주) HI-NURI (주)누리산업개발 HI-NURI (주)나로디엠씨 HI-NURI (주)하이누리

모두가 같은 길을 걸을 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찾습니다.
모두가 한곳을 바로보고 있을 때 새로운 시선으로 숨겨진 길을 찾아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접근과 전략으로 성공 분양으로 가는길,
부동산개발 | 분양마케팅 전문 그룹 하이누리가 해내고 있습니다.

회장 김 동 기
광주·전남 부동산학 박사1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1대, 2대 호남지회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한국 부동산 분양마케팅협회 호남지회장
광주광역시·광주도시공사 자문위원
분양상담사 법정교육 전임강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전임강사